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역사 비틀기 성경: 마태복음 28장1-15절

Tag: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28:1-15)

1948년, 1차 세계대전을 원폭으로 마감하고, 세계가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지오웰이 '1984'라는 작품을 발표한다.

이 소설은 세계가 초국가로 3분 되면서(미중소)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일종의 공포소설인데, 이후의 많은 작가들이 조지오웰의 추측에 동조하면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영화로는 '스타워즈'가 그런 분위기였고, 만화영화로는 '미래소년 코난'이 그랬던 것 같다.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이 진리성 기록관리국에 근무하면서 과거의 신문들을 전체주의(공산주의) 체제에 부합하도록 사실을 왜곡해서 다시 기록하는 업무를 맡았다는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신문은 영구 폐기되고 그 날짜에 새로운 이야기가 기록된 신문이 제작되어 보관된다. 바로 체제에 옹호하는 기사로 대체되고, 체제에 비판적인 사실들은 왜곡된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다. 대제사장들 자신들이 지향하는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 그날 발생한 셈이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한낱 인간에 불과해야 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늘 상 그랬듯이 신실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도전이 되었던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꼬투리를 잡아서 제거해야만 한다는 그들만의 비열한 정의감을 여전히 표출한 셈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만큼은 지혜로운 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리라고 예언했던 사실을 잊지 않았

다. 인근의 불량배들, 반정부주의자들을 굶어모아 빌라도를 속여먹기는 했지만, 만에 하나 시체가 도둑질 당하고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면 속수무책이라.

예수님의 행적으로 보면 정말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가능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였다. 빌라도는 이 몰상식한 부탁을 당연히 거절하였고, 너희들에게도 군사들이 있으니 정 지키고 싶거든랑 스스로 알아서 지키라고 하였다.

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27:62-66)

그들은 이 자가 반역을 도모한 자였고, 로마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했으니, 마땅히 로마 군사들이 지켜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슨 헛소리쯤으로 들렸을 터.

하는 수 없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신들의 군사를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나 새벽 미명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을 굳게 봉하고 있던 돌문이 열리고 햇빛과 같은 빛나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고 말았다.

이 소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대제사장과 그 군

사들에게는 재앙의 소식이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가 후에는 진리로 받아 들였다. 반면 대제사장은 바로 믿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 것만은 인정할 셈이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결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야로 보내실수는 없었다. 그러나 벌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가치관의 충돌이며, 체제의 충돌이다. 이럴 경우 대개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체제에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시체를 흠친 사건으로 결론이 난다.

그들은 이 사실이 민간에 알려지면 자신들의 기득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재빨리 거짓말을 만들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흠쳐갔다는 것이다. 이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사이에 공공연히 퍼져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항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역사를 왜곡하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무튼 이런 사실왜곡 현상은 모든 죄인들의 충동적인 행동이다.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으며, 어린아이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하다. 그런데 체제를 장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체제를 계속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역사를 비틀어 놓는다. 그것이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쉽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흔히들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들도, 전직 대통령들이 어떻게 독재를 실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어제는 우연히 유튜브 리셋TV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혀 주었

다. (정리해 주어서 감사)

오일쇼크가 진행되던 70년대 초, 전 세계의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을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채업자들은 정치인들과 결탁되어 고리의 사채이율로 기업들의 소득을 강탈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채동결을 선포하고 은행에 저축할 것과 저리로 대출할 것을 단행하였다. 사채업자들과 정치인들은 반발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초 단시간내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정부를 개편하였다.

그 결과 은행에 돈이 모이고 기업들은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대기업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대기업 총수들은 막강한 결정권을 휘두르게 되었고,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결정으로 발빠르게 세계 무역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반면 당시 일본은 기업들이 민주화가 진행되어서 기업총수가 결정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자 번번히 시기를 놓치게 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가 원하는 안전한 회사가 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기업들이 기준을 맞추다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후회하고 이제는 과거의 화려했던 기술강국의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에 적극 협력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그런 일본의 외교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되었다. (현 정부는 바로 이점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국을 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고 있다. 사실은 이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왜곡.)

역사를 왜곡하면 나라는 망한다. 역사는 나라의 방향성을 일깨워주는 키의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부정하고 비판하고 왜곡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을 인

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그 이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분별이 가능해진다.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의 정권야욕을 위해서 유신헌법을 단행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북한이 최대 압박 세력이었고(현 기득권세력은 이 사실을 숨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결과적으로 나라는 부강해지기 시작했고 초 단시간 안에 북한을 초월해서 나라의 경제적 초석을 다질 수 있게 하였다. 만약 유신헌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비슷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현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정신세력인 '386 민주화 세력'(그 핵심은 주사와 세력-빨치산의 후예들)은 과거정부에 대한 백두산과 같은 거짓말로 역사를 왜곡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역사왜곡의 중심에는 서울대학교 역사학자들이 주도적이었고, 이들은 공산주의 이론으로 역사를 재해석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지식의 걸땀이 들어 땀내기용으로 잘못된 역사해석을 진실된 역사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기초로 한 교과서 운동을 하게 되었고, 반대하는 자들은 친일 역사관으로 매도하면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마귀가 귀신을 이용해서 그 집안의 흑역사를 왜곡하면서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지배한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 시절의 기억과 감정을 왜곡하고 악이용하여 개인의 심령을 조종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복음전파이다.

오직 성경말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역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다. 개인에게도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일어난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과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자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기차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칙 푹 칙칙 푹푹 칙칙푹 푹, 칙칙푹푹 기차소리 요란해도 아기자기 잘도 잔다.

기차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크다. 칙 푹 칙칙 푹푹 칙칙푹 푹, 칙칙푹푹 기차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크다.

진리의 햇불로 거짓의 산을 태우자!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